

'6월 국회' 한국당 빼고 열린다

여야 4당 의총 개최 임시국회 소집 동참 결정 민생법 4당 공조 검토 한국당 불참에 추경 '난항'



"일 좀 합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계단을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가 오는 20일께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달 7일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이후 40일 만에 국회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문화'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이 소집을 주도하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동참하는 형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나 소득이 없자, 6월 임시국회를 대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 3당 협상이 마지막 순간 '경제정문화'에 막혀 결렬된 상황"이라며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25명으로 국회 소집요건인 75명에 미치지 못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을 비

롯한 평화당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대화 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당 차원의 소집요구서는 내지 않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서에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정문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정문화는 민주당 자긍심을 내놓으라는 요구이고 협상 예비에 벗어난 무례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를 연 뒤 한국당을 설득해 추경을 비롯한 현안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추경 이외의 다른 현안의 경우,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처

리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포기하고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 후속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동참했다. 다만 평화당은 국회 문을 연 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정문화'를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정문화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정문화 개

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게)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국회의원) 4선을 하는 동안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당의 단일대오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외투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은 물론 여론 역풍을 고려해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적잖은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공전과 관련, 자유한국당 책임론이 크다"며 "국회 복구에 대한 적절한 계기를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문대통령에 영수회담 재요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제1야당의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해의 순방까지 갔다 오셨으니 어렵지 않은 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쟁으로서가 아니라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드릴 말씀들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외국 순방을 하느라 고생한데 그 많은 일정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제1야당 대표에게 할애해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정문화가 무엇이 그리 어렵나"라며 "금방 끝날

수 있는 길을 오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터리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바른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정쟁-총선 추경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추경을 이야기한다면 (경제정문화를) 왜 못하겠다고 하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막 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화당, 총선 앞 갈등 고조

정동영 대표 최고위원 임명 강행...원내지도부 항의 불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내부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 구성, 선도적 탈당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분란의 표면적 이유는 정동영 대표의 박주현 최고위원 임명 강행이다. 정 대표가 친정 체제 강화를 위해 자신의 측근인 박 의원을 기습적으로 최고위원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지도부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 당장 17일 열린 최고위에 유성열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이 항의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열리는 의총에서 이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비대위 구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분란의 배경으로 총선을 앞둔 당의 진로

를 꼽고 있다.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들은 '자강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유성열 원내대표 등은 제3지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은 "대표가 당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비전 창출이 필요한 시점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탈당을 통해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제3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전남 지역 모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가자는 것은 모두 함께 죽자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판을 흔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孫 측근 '주대환 혁신위' 출범

안·유계 대승적 양보...내부 역량 결집 과제

바른미래당이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순학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최고위원과 간담회 협의해 혁신위원 9명을 인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주 의장 선임은 최고위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혁신위가 해결한 것은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대환 혁신위' 출범은 손 대표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그동안 당내의 바른

정당계와 안철수 전 대표 진영은 정병국 의원을 내세워 대표의 진퇴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전권 혁신위' 출범을 주장했으나 손 대표가 막판까지 버티며 주대환 카드를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정당계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유승민계) 최고위원 5명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며 "큰 정치는 크게 양보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혁신위원 구성을 이번 주안으로 끝내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려 한다"며 "혁신위를 설치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신 작업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옛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1979년 부마 항쟁 때 투옥되는 등 80년대 노동운동에 투신한 재야인사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지냈고, 지난 4월부터는 시민단체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맡았다.

하지만 혁신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이 정상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호남계와 바른정당계, 안철수 전 대표 진영 등 당내 세력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역량 결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친박 신당 창당 보수 재편 '주목'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 탈당과 '친박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수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애국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을 신당의 공동대표에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앙당을 만들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기라운지

이개호 장관 함평 방문 양파 수급상황 점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전남 함평 양파 수확 현장을 방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파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함평 천지농협을 방문해 박병호 전남 행정부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남중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운 점과 양파 수급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중만생종 양파 공급 과잉 예상물량 12만t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양파 가격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 "재배면적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났고 10cm 이상 큰 구(球)가 많이 출하되는 것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며 "그동안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물량 9만4천t을 시장 격리해 왔지만,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비(非)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만6천t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청정바닷가 집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완도군 완도를 망석리 도로점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밀증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강진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근거리 소형아파트 적합 19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윤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집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국 입야

- ▶ 바로 삽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윤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